

뉴스 라운드업

- 월러 Fed 이사 '인플레이션 둔화 확인되면 9월 금리동결 지지' 발언에 뉴욕증시 급등, S&P500 +1.06%·나스닥 +1.40% 마감
- 달러인덱스 -0.59%, 미 10년물 국채금리 4.772%로 하락, 금값 +1.96%·VIX 14.31로 위험선호 회복
- 미국의 대이란 공급·제재 지속, 이란군 사망자 13명으로 집계되며 WTI 91.30 달러로 6주래 최고치
- 코스피·항셱 등 아시아 증시는 월러 발언 이전 전일 마감분, 간밤 랠리 반영은 오늘 개장에서 확인될 전망

월러 Fed 이사의 '9월 동결 가능성' 발언에 뉴욕증시가 급등하고 안전자산 쏠림이 풀렸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목요일(현지시간) 8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세를 확인해주면 9월 15~16일 회의에서 금리를 3.50~3.75%로 동결하는 쪽을 지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했다. S&P500은 1.06%, 나스닥은 1.40% 오르며 마감했고 다우도 1%대 상승을 기록했다. CME 페드워치 기준 9월 인상 확률은 발언 전 60%대 초반에서 발언 직후 50%대 초반까지 낮아졌는데, 이는 그동안 시장이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반영해온 국면에서 '인상이나 동결이냐'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로 좁혀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제로 12월·내년 1월 회의까지도 선물시장은 여전히 인하가 아닌 인상 쪽에 더 높은 확률을 매기고 있어, 이번 랠리를 통상적인 '금리 인하 기대'의 결과로 해석하기보다는 인상 사이클 내에서 속도조절 가능성이 열렸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하다. 같은 날 JD 밴스 부통령은 백악관이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이 여전히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실제 프라이싱과는 결이 다른 정치적 압박으로 풀이된다.

달러인덱스는 0.59% 밀렸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772%로, 2년물은 4.340%로 각각 소폭 하락했다. 금은 2% 가까이 뛰어 온스당 4,477 달러대로 올라섰고 VIX는 5.79% 내린 14.31을 기록해 최근 며칠간의 경계심리가 상당 부분 누그러진 모습이다. 다만 같은 날 발표된 8월 ISM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5.4로 전월(54.1)보다 오히려 개선되며 신규주문이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지불가격 지수도 높아져, 서비스업 물가 압력 자체는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점을 함께 보여줬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만 6천 건으로 완만한 수준을 유지해 노동시장은 '천천히 뿔고 천천히 자르는' 흐름을 이어갔고, 7월 무역적자는 전월 대비 24.4% 확대된 886억 달러로 집계돼 자본재 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점이 눈에 띈다. 여기에 미국의 대이란 공급과 제재가 이번 주 들어 한층 거세지면서(이란 측이 집계한 군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다) WTI는 91.30 달러로 6주 만에 최고치를 다시 썼는데, 이는 유가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쉽게 가시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동결 기대와는 상충하는 변수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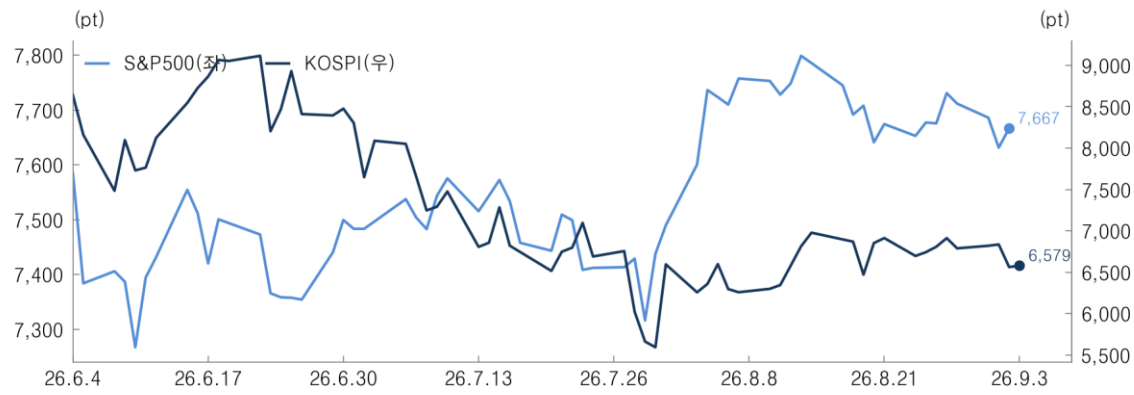
다만 이날 랠리를 아시아 증시 전반의 신호로 확대 해석하기는 이르다. 코스피(+0.26%), 항셱(-0.39%), 니케이(-0.17%), CSI300(+0.10%) 등은 모두 월러 발언 이전인 전일 오후 15~16시(KST)에 이미 마감한 수치로, 간밤 뉴욕발 훈풍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미·유럽 증시 급등과 VIX 급락이 하루 만에 위험선호를 되돌렸다는 점은 최근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 기존 하우스 뷰의 완만한 위험회피(mild risk-off) 판단과 궤를 같이하지만, 한국·유럽 국채 커브의 플래트닝 압력이나 아시아 역내 증시 간 동조화 심화 같은 구조적 균열은 이번 랠리 하나로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오늘 아시아 개장에서 간밤 반등이 얼마나 이어지는지, 그리고 엔화가 일본은행 정상화 기대 속에 추가로 강세를 보일지가 다음 확인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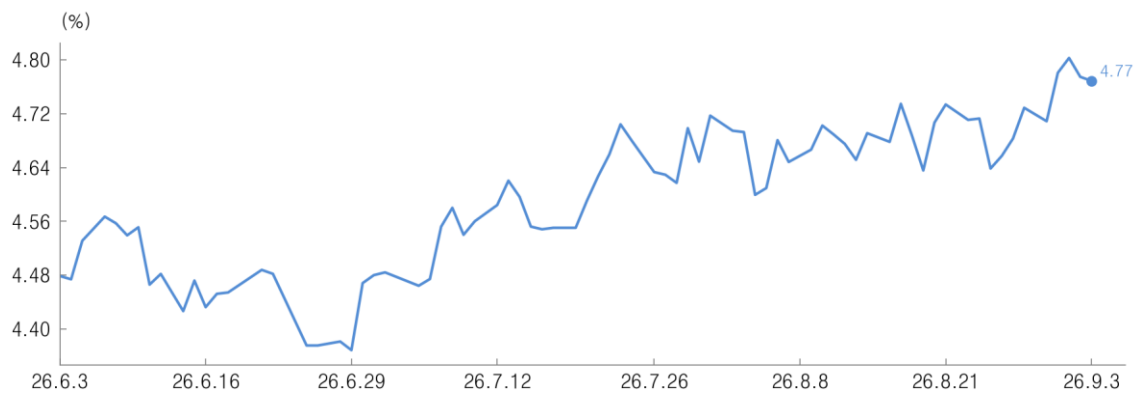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747.71	+1.06%	9/3 종가
	나스닥	26,584.05	+1.40%	9/3 종가
	STOXX 600	649.11	+0.49%	9/3 종가
	닛케이 225	64,214.26	-0.17%	9/3 종가
	CSI 300	4,552.58	+0.10%	9/3 종가
	KOSPI	6,579.48	+0.26%	9/3 종가
	항생	25,213.31	-0.39%	9/3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8.99	-0.59%	9/3 종가
	달러/엔	155.82	+0.01%	9/4 종가
	유로/달러	1.16	-0.01%	9/4 종가
	달러/원	1,355.97	-0.19%	9/3 종가
	달러/위안	6.72	-0.01%	9/3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772%	-0.8bp	9/3 종가
	미국 2 년	4.340%	-3.1bp	9/3 종가
	일본 10 년	2.948%	-5.4bp	9/3 종가
	독일 10 년	3.353%	-2.0bp	9/3 종가
	한국 10 년	4.363%	-4.1bp	9/3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66bp	+1.0bp	9/2 종가
원자재	WTI	91.30	+0.32%	9/3 종가
	금	4,477.58	+1.96%	9/3 종가
	구리	6.66	+1.08%	9/3 종가
변동성	VIX	14.31	-5.79%	9/3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16 건 HIGH	• 캐나다 8 월 서비스 경기 6 개월 만에 수축 ↳ PMI(구매관리자지수) 46.8 로 2 월 이후 최저 (50 이하는 경제 수축 신호) ↳ 미국·중동 지정학 긴장과 무역 불확실성이 신규 수주 약화 주도 • 캐나다 7 월 무역수지 C\$769M 으로 대폭 축소, 미국 50% 관세 본격화 임박 ↳ 전월 C\$4.2B 에서 C\$769M 으로 급감, 에너지·금속 수출은 -2.3%, 수입은 +2.2% ↳ 미국이 총 수출의 66% 차지, 9 월 말 50% 관세 본격화 시점부터 통계 반영 예상 • 미국 10 년물 국채 수익률 4.74%, 연준 9 월 인상 시장 확률 60% 반영 ↳ 목요일 미국 경제지표(실업급여청구, 서비스 PMI 등) 발표로 인상 기대 강화, 주가는 S&P500 +1% 상승하며 나스닥이 상승 주도 ↳ 브렌트유 배럴당 \$97 로 상승하며 경기 둔화 우려 가중 • 엔화 2 일 만에 2% 급등, 일본 당국 개입 신호 재확인 ↳ 8 월 초 개입 이후 최대 상승폭, EUR/USD 는 1.1588~1.1614 범위에서 약세 압박
미국 뉴스 70 건 HIGH	• 연준 금리인상 기조 전환 신호, 시장 9 월 인상 확률 50% 이하로 조정 ↳ 지난밤 Waller 연준 이사, 8 월 인플레이 데이터 진정 시 9 월 중 금리 유지 의향 표명 — 기준금리 현재 3.50~3.75% ↳ 시장의 9 월 인상 베팅 62%에서 50% 전후로 급락, 9 월 15~16 일 FOMC 를 앞두고 기조 전환으로 해석 ↳ 달러 0.7% 약세, 엔화 2% 강세, 금값 2.3% 상승(\$4,488.54/온스), 주가 상승(다우 +1.18%, S&P +1.06%, 나스닥 +1.40%), 10 년물 국채 수익률 ~4.76%로 하락 • 8 월 미국 비제조업 부문 활황, 신규주문 3.5 년 만에 최고 ↳ ISM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5.4 로 상승(7 월 54.1), 강한 수요가 신규주문을 3.5 년 만에 최고로 견인 ↳ 투입비용·납품가격 동반 상승으로 인플레이 위험 신호, 공급자 납기 지수는 21 개월 연속 둔화(수요 견조 신호) ↳ 고용지표는 약세 신호(비제조업 채용 약화) — 금요일 미국 고용통계가 연준 결정의 판단 자료로 주목 • 미국-이란 갈등 심화, 폭격으로 군 13 명 사망 · 경제 압박 강화 ↳ 지난주 미국 폭격으로 이란 군 최소 13 명 사망(조종사 3 명 포함) ↳ 미국, 경제 압박 강화 — 원유 수출 봉쇄, 달러 거래 차단 등 2 차 제재로 수입·외부 자금조달 차단, UAE 도 이란과 무역·금융 단절 선언 ↳ 중동 지정학 위험 고조로 유가 급등 — 브렌트유 \$97.29/배럴(+1.7%), WTI \$93.04(+2.2%), 6 주 만에 최고 • 국채 안전프리미엄 소진으로 중립금리 상승 가능성 — Waller 분석 ↳ Waller 연준 이사, 미국 국채의 안전·유동성 프리미엄이 이미 소진됨을 지적 — 자본경쟁 심화와 재정 우려 반영 ↳ 뉴욕연준 중립금리(R-star) 모형 추정치 1.65%(2 분기) — 중립금리 상승이 국채 수익률

권역	요약
	상승의 구조적 요인 ↳ 경제 성장만으로는 미국 채무 증가 해소 불가, 구조적 재정적자 축소 필요(Waller 진단) • 자동차업계 단체, 중국차 수입금지법 연말까지 의회 통과 촉구 ↳ 자동차혁신동맹(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성명 발표 — GM, 포드, 도요타, 폭스바겐 등 주요 제조사 회원 ↳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차 금지 조치를 넘어 입법을 통한 강화 요구,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국차 위협 인식
EM 기타 뉴스 13 건 HIGH	•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가능성 언급에 밀 선물 하락, 흑해 곡물 공급 위험 완화 ↳ 어제 저녁 블라디보스토크 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협약 도출이 가능하다고 발언, 미국·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평화협상 지지 의사를 보임 ↳ 우크라이나 외교부의 수비하(Sybiha) 의원도 평화노력의 새로운 국면 진입을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양측이 드물게 동시 낙관론 표현 (다만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항공 위협 경고가 협상을 난제로 만든다는 유보 추가) ↳ 곡물 수출 차질 우려 완화로 밀 선물(시카고 Wv1) 3.6% 하락해 부셸당 \$7.46 1/4 선까지 후퇴 • 세네갈, IMF 구제금융 받으면서도 2048 년물 달러채 9 월 쿠폰 적기 송금 개시 ↳ 세네갈 경제부 고위 관계자가 9 월 13 일 만기 2048 년 국제채의 쿠폰(이자) 송금을 이미 시작했다고 확인, 채무 재구조화 과정에서 IMF 구제 금융 상환을 계속하겠다는 신호 ↳ 금주 IMF 와 체결한 \$22 억 3 년 차입금 양해각서가 채권 상환 유예(suspension)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신용 신뢰 강화 ↳ 소식에 세네갈 국제채 랠리 — 2048 년물이 +2.5 센트 상승해 51.47 센트/달러(Tradeweb)로 평가 • 볼리비아 시민단체·노조, IMF \$19 억 긴축 프로그램 저항 계속, 연료 부족과 연계 의심 ↳ 어제 라파스 인근 코차밤바에서 9 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회동, 정부의 디젤 보조금 축소와 연료 부족을 IMF 차입 조건과 연결한 긴축 우려 표현 ↳ \$19 억 규모 IMF 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의회 및 IMF 집행위 승인 대기 중 ↳ 반발의 배경: 1980~90 년대 IMF 구제금융 당시 경험한 가혹한 긴축 기억, 재정부 장관 사퇴 등으로 투자자 신뢰도 약화 • 폴란드 통화정책위원회 이보나 두다, 기준금리 연말까지 현 수준 유지가 기본 시나리오 ↳ 폴란드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 이보나 두다가 '기준금리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 현 수준 동결이 기본 시나리오'라고 블룸버그에 밝힘 ↳ 배경: 지난 7 월 아담 글라핀스키 총재가 여름 휴무 이후 25bp 인하 제안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다른 정책위원들은 추가 완화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신호 • 헝가리 중앙은행, 이달 금리 결정을 9 월 인플레이션 전망에 맞춰 판단 예정 ↳ 헝가리 중앙은행이 이달 금리 인상 중단(pause) 여부를 9 월 인플레이션 전망에 기반해 결정하겠다고 공식 입장 표현 ↳ 블룸버그 보도(이달 금리 완화 중단 가능성)에 대한 응답 성격 • 이집트 2025/26 회계연도 GDP 성장률 5.1%, 전년(4.4%) 대비 0.7%p 상향
유럽	• 영국중앙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신속한 금리 인상이 장기 공격적 대응 필요성 완화할 수

권역	요약
뉴스 29 건	있다고 주장 ↳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재가속 위험 심화 중 ↳ Pill 수석 이코노미스트: 지금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의 '2 차 파급효과'(임금·기대인플레이션 재상승)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면, 향후 대응의 크기와 기간을 줄일 수 있음 ↳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속 미세조정식 대응 거부, 명확하고 신속한 정책 신호로 시장 불안 완화 필요성 강조 • ECB 9 월 10 일 금리 인상으로 15 년 만에 가장 짧은 사이클 마무리 ↳ 로이터 설문 결과, 대다수 경제학자가 다음 주 금리 인상을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인상으로 예상 ↳ 에너지 가격 상승이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지배적 ↳ 시장 선도금리(forward rate): 내년 6 월까지 예금금리 3% 수준 반영 • 스웨덴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위험이 명확하지 않으며 경제 성장 가능성 제시 ↳ 하절기 물가가 6 월 전망치보다 높았으나, 공급 충격의 소비자물가 영향이 불명확 ↳ Thedeen 총재: 지금까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신호 없음, 높은 경계 유지 필요 ↳ 노동시장에 여유 용량 있어, 경제 성장이 단기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진행될 가능성 제시 • 영국·유로존 채권이 가스 가격 하락에 반등, 장기 수익률 수년래 고점서 복귀 ↳ 영국: 20 년물·30 년물 gilt 수익률이 이틀간 1998 년 이후 최고 수준에서 지난주 수준으로 복귀, 단·중기물은 여전히 고점 유지 ↳ 유로존: 6 일 연속 약세 후 반등, 독일 10 년물 분트(Bund) 수익률 15 년 만의 고점 근처 ↳ 벤치마크 천연가스 가격 하락이 에너지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기여 • 폭스바겐 감독위원회, 5 만 명 감원 포함 근본적 구조조정 계획 승인 ↳ 어제 감독위 전원일치로 '미래계획(Future Plan)' 승인 ↳ 경영진급 포함 5 만 명 규모 감원 가능성 포함, 경쟁력 강화·미래 대비 목표 ↳ 회사 발표에 따르면 이 계획은 폭스바겐 그룹과 산하 브랜드의 효율성·경쟁력·미래 포지셔닝 제고 추구 • EU 경쟁위원회, 지속가능한 사업 관행에 기반한 독과점 기업 처분 예외 규정 신설 ↳ 시장점유율 40% 이상 독과점 기업의 경쟁 제약 행위를, 지속가능성(원자재 절감·오염 감소·재활용 제고) 기준으로 정당화 가능하도록 경쟁법 지침 개정 발표 ↳ 이전 규칙보다 경쟁 제약에 더 많은 예외 여지 허용 • 아일랜드 8 월 법인세 수입 급증, 연간 세수 39 억 유로 상회 ↳ 8 월 법인세 수입 28 억 유로(전년 21 억 유로 대비 약 33% 증가), 소수 미국 다국적 기업 납부분이 대부분 ↳ 법인세 추가 수입이 전년 동기(Apple 역사적 과세액 제외) 대비 연누적 세수를 6.2% 또는 39 억 유로 상회 ↳ 연간 법인세 수입 8.3% 증가로 기록적 세수 수준 달성 • 독일 Stade 부유식 LNG 수입 터미널, 9 월 설치 후 11 월 본격 가동 예정 ↳ Deutsche Energy Terminal 운영사가 Energos Force FSRU(부유식 저장 재가스화 설비) 9 월 Stade 에 도착 예정 발표 ↳ 러시아 파이프라인 공급 차단(2022 년) 이후 에너지 공급처 다각화 전략의 일환, 독일 5 번째

권역	요약
	부유식 LNG 터미널 ↳ 11 월 첫 화물(commissioning cargo)로 본격 가동 예상 • 영국 8 월 신규차 등록 17.5% 증가, 배터리전기차가 최대 연료 종류로 등극 ↳ NewAutomotive 데이터: 8 월 신규등록 전년 동월 대비 17.5% 증가 ↳ 배터리전기차(BEV)가 영국 시장 최대 연료 종류로 등극 • 뮌헨 방위기업 외부 의심 방화 사건, 독일 인프라 공격 잇따름 ↳ 독일 당국이 어제 뮌헨 방위업체 외부에서 일어난 의심 방화 사건 수사 중 ↳ 지난달 공항 드론 공격에 이어 일련의 시설 파괴·방해 사건 계속 발생, 베를린은 러시아를 지목 ↳ 2024 년 7 월 DHL 소포 화재(라이프치히 공항) → 영국·폴란드 물류센터 소포 폭발로 후속 확대 → 러시아 숨겨진 발화장치 사건으로 후일 판명
중국 뉴스 3 건	• 정책금융 부금 지급 개시, 신흥 기업 지원 5 개년 계획 발표 — 기업 성장·고용 창출 추진 ↳ 중국개발은행, 2026 정책기반 융자 첫 번째 부금 4 억 6,000 만 위안(약 6,847 만 달러) 지급 — 배터리·고급 니켈·크롬 소재·수송 인프라 3 개 사업에 투입 ↳ 중앙 정부 10 개 기관, '작은 거인(little giants)'과 신흥 분야 중소기업 지원 5 개년 계획 발표 —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참여·정부 자금 활용 초기 자본 투입으로 기술 자립·일자리 창출 추진 • 중국 현지 신용등급 관대화로 국내 금융시장 신용 위험 누적 경고 ↳ S&P Global Ratings 아태지역 평가 책임자, 중국 현지 채권 시장에서 상위등급(AAA 이상) 발행자에 편중되는 신용등급 관대화 현상 지적 ↳ 해외 기업이 전 세계 신용등급 기준으로는 B 등급(투기적 등급)이나 중국 현지 판다본드(위안화 채권) 발행 기준으로는 AAA 등급(최고 신용도)으로 상향 평가되면서 신용 위험이 국내 금융시장에 유입되는 구조
일본 뉴스 7 건	• 엔화 2% 이상 급등, 9 월 일본은행 금리 인상 베팅 75%로 치솟음 ↳ 달러/엔 환율 158.96 에서 156.17 로 하락, 7 월 고점 근처 도달 ↳ 시장이 9 월 일본은행(BOJ) 기준금리 0.25%(25bp) 인상 확률을 75%로 평가 중, BOJ 계정 데이터상 9 월 3 일 공식 엔화 매수 개입은 미확인 ↳ 8 월 저점 155.20 수준까지 추가 약세 가능성 거론, 달러는 연준(Fed) Waller 위원 발언 이후 추가 약세 • 일본 통화 담당 차관 Mimura, 엔화 급변에 경계 태세 유지 ↳ 최근 엔화 움직임에 '아직 안심하지 못한 상태'라며 통화시장 동향 감시 중 ↳ 구체적 환율·정책 입장 공개는 회피하며 신중한 태도 유지
인도 뉴스 5 건	• RBI 특별 달러예금 제도, 예상치를 웃도는 약 1,272.3 억 달러 유입으로 유동성 여유 사상 최대 ↳ 인도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여유가 9.70 조 루피(약 1,027 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까지 확대 ↳ RBI 는 과잉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변동금리 역레포(VRRR, Variable Rate Reverse Repo) 등의 흡수 수단을 검토 중 • 루피, 10 주 만에 최고 수준(94.49 루피/\$)에 도달 — RBI 달러 유입이 주도 ↳ 전일 94.49 루피/달러로 마감해 6 월 25 일 이후 처음 이 수준 기록, 일간 상승률 +0.5%는 7 월 27 일 이후 최대

권역	요약
	↳ 개장(94.30)에서 출발했으나 수입업체의 달러 수요가 상승폭 일부를 제한 • 인도 국채, 달러 유입과 유가 급등의 상승으로 수익률 엇갈림 ↳ 달러 유입으로 오전 중 10 년물 수익률이 6.9323%까지 내려갔으나,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반등 ↳ 10 년물(2036 년 만기 6.94% 쿠폰)은 6.9646% 마감(전일 6.9754%), 5 년물은 6.5216% 마감(4bp 하락)으로 단기물이 상대적 강세 • 인도 증권거래위원회, 파생상품 결제 가격 산정 방법론 재검토 추진 — 시장 조종 우려 ↳ 8 월 3 일 현물시장(equity cash market) 마감 가격 결정 목적으로 도입한 마감 경매(closing auction) 후 거래소별 지수 괴리, 옵션 가격 급변동, 시장 조종 우려 등이 제기됨 ↳ 규제당국은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파생상품 결제 가격 산정 방법론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결정
브라질 뉴스 5 건	• 라틴아메리카 주식시장 수개월래 고점 기록, 원유 상승과 달러 약세가 지지 ↳ MSCI 라틴아메리카 지수 0.6% 상승, 4 개월 고점 근처 유지 ↳ 브라질 보베스파 0.7% 상승, 12 거래일 연속 상승세 ↳ 칠레 중앙은행 기준금리 다음 주 4.5% 유지 전망 • 브라질·유럽중앙은행(ECB), Pix 기반 초국경 결제 연계 검토 ↳ 파일럿 프로젝트 2028 년 출범 가능, Pix 를 통한 초국경 거래의 첫 본격 시범 • 라틴아메리카 고금리 통화, 캐리 트레이드 지지로 상승세 지속 전망 ↳ JPMorgan, 콜롬비아 페소·브라질 레알·멕시코 페소 등 세계 최고 수익률 통화의 캐리 거래 지지 지속 예상 ↳ 지난달 미 국채시장 지지 조치 이후 달러 약세로 캐리 거래 수익성 확대 ↳ 다만 최근 통화 강세가 경제 개선을 반영하지 못함
남미 기타 뉴스 2 건	• 콜롬비아 우파 정부, 광산·석유 개발 규제 10 개 행정령으로 폐기 ↳ 신임 우파 대통령 Abelardo De La Espriella 의 경제 부양정책 일환 ↳ 전임 좌파 행정부의 자원 탐사·채취 제한 규정(10 개)을 행정령으로 폐기 ↳ 절차 간소화 등 추가 정책의 행정령 추진 예정 • 칠레 중앙은행, 9 월 8 일 정책회의서 기준금리 4.5% 현 수준 유지…24 개월 동결 전망 ↳ 중앙은행 거래자 설문(로이터 집계) 기준의 전망 ↳ 소비자물가 8 월 0.3%, 9 월 0.6%로 가속, 12 개월 3.3% 상승 전망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